

# 손 소독·가림막...은행들 고객 불안 잠재우기

### 농협은행·농축협, 투명 아크릴 가림막 설치 광주은행, 출입문·번호표기 등 2차례 세정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이 급감하면서 각 은행이 고객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25일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전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지역 농협은행과 농·축협 영업점 639곳은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가로 45cm·세로 45cm 크기인 이 가림막은 고객과 직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말감염 위험과 불안을 덜기 위한 것으로, 아크릴판 구조물 하부에는 흡이 파여 신청서 등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다.

가림막이 설치된 영업점은 광주 농협은행 28곳(203개 설치)·농축협 109곳(545개), 전남 농협은행 50곳(320개)·농축협 452곳(2260개)이다.

강국진 농협 전남본부 상호금융업무지원단 단장은 "가림막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고객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은 코로나19 감염에 방을 위해 전 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개인용 살균제를 제공, 장구·자동화기기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은행 광주지역 영업점 11곳도 내부 모임을 자제하고 정기 소독을 벌이고 있으며, 광주은행은 145개 영업점을 매일 2차례씩 소독하고 있다.

출입문 손잡이, 순번 번호표기, 필연대 불펜, 전자패드·펜, 고객의 손잡이, 객장 카운터 등 꼼꼼히 세정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모바일 번호표 발권과 비대면 금융업무를 안내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광주은행에서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치를 수 있는 스마트뱅킹·웹뱅킹 업무는 20가지 정도다.

입출금통장 신규·조회·이체, 예적금 신



광주·전남지역 농협은행과 농·축협 639곳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규·해자·조회·이체 등 수신업무와 ▲여신 업무(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외환업무(환전, 외화예·적금 신규, 외화계좌 신규), ▲펀드업무(펀드 신규·해지·환매·조회·추가입금) ▲공과금납부·등록금납부 등이 있다.

지난 달 3~20일 2주 동안 광주은행 영업점 창구 이용 고객(대기표 발권 수)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4000명(9.3%) 줄어든 13만6296명으로 집계됐

다.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4일에는 전남보다 창구 이용객이 2670명(18.5%) 급감했으며, 이날 이후 사흘 동안 매일 100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49만건으로, 전년보다 76.7% 급증했다. 일 평균 이용액수도 234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124.4%)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704.76 (+94.79)	금리(국고채 3년) 1.13 (0.00)
↑ 코스닥 505.68 (+25.28)	↓ 환율(USD) 1229.90 (-19.70)

## 하루 대출 신청 1600명...지역신보 인력 태부족

### 전국 16개 신보 290명 채용 광주신보 6명 배치

"어제(24일) 대출 신청을 한 광주시민만 1600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겪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6일까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한시 근무인력 29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들 인력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할 계획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는 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하루 평균 1000~1500명이 넘는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채용인력이 크게 모자란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기준 1만4900여명이 광주신보를 통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처리 건수

는 2200건(750억원 상당)에 그쳤다. 한시가 급한 신청자들은 밀리고 밀려 자금 지원까지 한 달이나 한 달 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광주신보 근무인원은 총 53명으로, 이달 초부터 9개 은행 전 영업점에 보증심사를 위탁했지만 업무량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주신보 보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은 광주·하나·신한·기아·국민·우리 등 9개 은행이다.

광주신보 관계자는 "급증한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10명 이상은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자금이 시급한 소상공인에 신속히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3~26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한시 근무인력 채용신청을 받고 있다. 채용된 인력은 면접 전형 등을 거쳐 4월9일부터 16개 지역신보 본·지점에서 보증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그룹사 경영진

### 1년간 급여 120% 반납

김중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1년간 월 급여의 1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한전은 경영진은 1년 동안 매달 10% 월 급여(1년 120%)를, 차·실장급 직원은 월 급여의 3%(1년 36%)를 반납할 계획을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급여 반납에 동참하는 한전 그룹사는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0개사이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한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300여명 임직원이 헌혈에 동참했다.

한전은 앞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한전 러브펀드'를 수제 마스크 생산에 사용하며 면 마스크 10만세트를 취약계층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역 농수특산물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복지기관에 전달하고, 구내 식당 지정일 휴무제를 시행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25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와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정기 주총...사외이사 2명 선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총에서는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과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광주은행 총 자산은 23조4000억원으

로, 전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00억원 증가한 1733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사외이사로 김경식 이사(㈜유메이스 고문)와 김진영 이사(㈜한국리스크관리 전문위원)가 신규 선임됐으며, 권재중 JB금융지주 부사장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광주은행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기존 김상국·장명철 이사는 임기(5년)가 만료됐다.

송 행장은 "지난해 광주은행이 또 한번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광주·전남 지역민과 고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중기부 소상공인 제품 50~70% 온라인 할인

### 플랫폼 '가치샵시다'서 판매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특별판매 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 '가치샵시다'에서 각 지역 특산물과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5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입점 수

료를 받지 않으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간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고객들에게는 20% 할인쿠폰과 경품 등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이번 특별판매를 시작으로 위메프, G마켓, 옥션, 11번가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음달부터 매일 8차례 이상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현대차 '올 뉴 아반떼' 사전 계약

다음달 7일 출시...1531만원부터

현대자동차는 25일 이날부터 아반떼 완전변경 신차인 '올 뉴 아반떼' 사전계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5년만에 나온 7세대 아반떼인 '올 뉴 아반떼'는 스마트스팀 가솔린 1.6 MPI와 1.6 LPI 두가지로 운영되며, 다음 달 7일 출시된다. 1.6 하이브리드 모델과 1.6 터보 N라인은 향후 출시 예정이다.

가격은 가솔린 모델 1531만~2422만원, LPI(일반판매용) 모델 1809만~

2197만원 범위에서 책정된다.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 1531만~1561만원 ▲모던 1899~1929만원 ▲인스퍼레이션 2392만~2422만원으로 책정됐다. LPI 모델은 ▲스타일 1809만~1839만원 ▲스마트 2034만~2064만원 ▲모던 2167만~2197만원 범위다.

'올 뉴 아반떼'는 스포티한 디자인, 3세대 신구 플랫폼으로 향상된 안전성, 실내 공간, 연비 효율, 차급을 뛰어넘는 최신 첨단 안전 편의사양이 특징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